제가 호텔이 되기 전에는요.....

감각적인 호텔로 변신한 옛 건물들

과거 수도원, 인쇄소, 구내식당, 간호사 관사, 자수 공장이었던 건물들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 더해 호텔로 다시 태어나
정부의 외국 손님들 모시던 곳에서의 하룻밤
디자이너나 건축학도라면 반드시 한 번 체험해 볼만

최근, 옛 공장을 카페로 바꾼 곳들이 대중적인 인기 얻고 있다. 일명 '창고형 카페'라고 불린다. 도시재생 사업도 한창이다. 인천복합문화공간 '코스모 40'이 대표적인 예다. 낡은 공장의 구조를 그대로 살려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간은 이채로운 분위기를 품은 전시, 행사, 카페, 레스토랑의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사실, 이런 경향은 스위스, 특히 취리히 서부(Zurich West) 지역이 선구적이다. 1890 년 에셔 비스(Escher Wyss)가 이 산업 지대에 처음 들어선 공장으로, 중장비 공장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비누 공장, 직물 공장, 맥주 양조장, 전기 모터 회사 등 다양한 공장이 들어선다. 현재 취리히의 "크라이스(Kreis) 5 구역"은 취리히의 노동자들이 살던 가장 오래된 주거지였던 곳이다. 그러다 1980 년대 산업이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공장들이 이주하거나 문을 닫게 된다. 공장들이 철수한 뒤, 광활한 1.4km2 의 지대가 그대로 버려지게 되나, 창조적인 기업들에 의해 2000 년대부터 다시 새롭게 부각되게 된다. 재활용 천과 부품을 이용하여 세계 유일의 디자인 가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한 브랜드, 프라이탁(Freitag)의 플래그숍도 이 곳에 위치한다. 19 개의 녹슨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건물 제일 꼭대기에는 취리히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빕킹어(Wipkinger)와 레텐(Letten) 고가는 450m 길이의 거리 장터(Market street)로 변신해, 고급 식료품, 바, 고서점, 갤러리, 목공예 공방, 예술 스튜디오 등이 함께 들어서기도 했다. 임 비아둑트(Im Viadukt)라 불리는 이 곳 장터에서는 패션 숍은 물론, 유기농 식자재나 고급 와인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에서는 맛깔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이런 철학과 트렌드를 기반으로 새롭게 태어난 호텔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어떤 호텔들은 특별한 역사로 인해 더욱 도회적인 스타일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호텔들은 이전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로 이용되던 곳이 종종 있다. 호텔로서의 역사 이상을 갖춘 새롭게 변신한 호텔들을 소개한다.

1. 취리히(Zürich)의 호텔 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 질시티(Hotel Four Points by Sheraton Sihlcity)****
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 호텔 취리히는 위틀리베르크(Uetliberg)와 취리히 호수 사이에 있다. 이 독특한 호텔은 1836 년에서 1990 년까지 운영되던 과거 인쇄소 자리에 터를 잡았다. 원래 건축물 구조에 현대적인 테크놀로지를 더해 건축학적 마스터피스를 성취했다는 평가다.

2. 바젤(Basel)의 노마드 디자인 & 라이프스타일 호텔(Nomad Design & Lifestyle Hotel)****
과거에 아파트였던 건물로, 1950 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물이 구석구석 감각적인 손길을 거쳐 다시 태어났다. 65 개의 객실은 각각 개별적인 디자인으로 단장되었는데, 현대적이면서도 도회적인 스타일로 장식되었다. 스몰 디자인 룸부터 디자인 펜트하우스 스위트까지 다양한 객실을 갖추고 있다. 전 객실이 현대적인 안락함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Switzerland Tourism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3. 생갈렌(St. Gallen)의 아인슈타인 생갈렌 – 호텔 콩그레스 스파(Einstein St. Gallen – Hotel Congress Spa)**S**
네오클래식한 5 층짜리 건물은 1830 년의 것으로, 이삭 다비드 아인슈타인(Isaak David Einstein)이 매입하여 자수 공장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1978 년, 생갈렌 텍스타일 제조업자, 막스 크라이믈러(Max Kriemler)가 건물을 양도해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거쳐 1983 년에 4 성급 호텔 아인슈타인으로 재탄생시켰다.

4. 취리히(Zurich)의 호텔 플로르호프(Hotel Florhof)***
18 세기의 고상한 귀족 저택으로, 한 때는 실크 및 거즈 제조 공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다. 현재의 외관은 1763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1907 년부터 취리히 중심부에서 어여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어 왔다.

5. 툰(Thun)의 부티크 호텔 슈페디티온(Boutique-Hotel Spedition)*S**
부티크 호텔 슈페디티온은 19 세기 치즈 유통 회사에 자리해 있다. 혁신적인 전통이 아늑한 디자인과 결합해 현대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6. 졸로투른(Solothurn)의 호텔 안 데르 아레(Hotel an der Aare)*S**
오래된 병원의 간호사 관사로 사용되던 건물에 자리한 이 호텔은 18 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와 현대적인 디자인을 조화롭게 구성했다. 자동차 진입이 금지된 바로크 양식의 졸로투른 구시가지까지 걸어서 금방이다.

7. 아르본(Arbon)의 호텔 분더바르 아게(Hotel Wunderbar AG)***
1944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우러(Saurer) 회사의 구내식당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예술적 디자인 컨셉이 감탄스럽다. 각 객실은 개별적으로 디자인되었는데, 특정 테마나 아티스트에 헌정된 디자인이 아름답다. 생갈렌(St. Gallen)에서 멀지 않다.

8. 에를라흐(Erlach)의 클로슈터호텔 생 페터진젤(Klosterhotel St. Petersinsel)***
과거 클뤼니파(Cluniac) 수도회로, 12 세기의 건물이다. 지금은 현대적인 스타일과 수도회적 간결함을 갖춘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13 개의 정통적 객실이 있는데, 객 객실에서는 각기 다른 시대를 특별하게 체험해볼 수 있다.

9. 취리히(Zurich)의 마르크트가쎄 호텔(Marktgasse Hotel)****
호텔 마르크트가쎄는 1425 년, 눈에 띄는 붉은 외벽으로 인해 “붉은 집”이라는 뜻의 로트후스(Rothus)로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다. 마르크트가쎄 거리에 있는 이 건물은 과거 취리히에서 가장 우아한 건물 중 하나로 꼽혔는데, 취리히 시 정부의 외국 손님들을 모시는 데 사용되었던 곳이다.

10. 무어그(Murg)의 로프트호텔(Lofthotel)*S**
발렌(Walen) 호숫가에 있는 오래된 방앗간으로, 1836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품고 있는데, 지금은 혁신적인 호텔이다. 주변 지역에서 공수한 품질 훌륭한 자재로 단장한 많은 객실은 인더스트리얼한 분위기와 하이 테크, 현대적인 디자인을 선보인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